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연구

이규영*, 민혜영**, 안양희***, 문윤정****, 고연수*****, 전은경*****

*적십자간호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세교중학교,
*****부림초등학교

■ 연구배경 및 목적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습관의 불균형으로 오는 비만, 인터넷 중독, 성폭력, 원치 않은 십대임신,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안전, 우울, 자살 등의 건강문제가 증가되면서 학생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어 있어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학교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가족 및 지역사회건강수준, 교육, 사회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보건소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 비만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일부 실시하고는 있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운영할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여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수행하였다.

■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수도권 지역 초·중·고등학교 16개교 학생 각각 100명씩 총 1,6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초등학생 500명중 323명, 중학생 500명중 323명, 고등학생 600명중 394명이 수거되어 총 1,040명(69.3%)의 학생 설문지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6월 30일에서 7월 17일까지 해당 학교 관리자와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1.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

초등학생들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키’로서 전체 응답자의 35.3%였다. 그 다음이 ‘스트레스’ 16.0%, 시력 15.1%의 순위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고민 역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13.3%, 그 다음이 ‘여드름’ 10.1% 순위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고민 역시 ‘키’에 대한 고민이 2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비만’ 20.0%, 여드름 11.7%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39.6%, 중학생 53.0%, 고등학생 47.8%로 나타났으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체형관리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초등학생 31.7%, 중학생 32.9%, 고등학생 45.1%).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체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키’에 대한 고민은 ‘체형관리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체형관리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